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Self-Regulation and Stress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교수 정현희
신라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최경순

Dept. of child and family environment, Dong Eui Univ.
Prof. : Jeong Hyeon-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Silla Univ.
Prof. : Choi Kyung-Soon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 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self-regulation and stress according to child's sex.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80 children of 5-6th grade select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Busan. Lee, Soon-Kyu's questionnaires(1994) on child's self-regulation and Han, Mi-Hyun's questionnaires(1996) on child's stress were used.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M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canonical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ccording to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s self-regulation and stress. The girls showed more self-regulation and higher friend-related stress than the boys. The boys showed higher parent-related stress than the girls. (2)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self-regulation and stress showed as follows : The boys who used more impulsive-control perceived lower friend-related stress, lower school-related stress, lower teacher-related stress, and lower surroundings-related stress. And the boys who used more behavioral-control perceived lower school-related stress, lower teacher-related stress, and lower surroundings-related stress. (3) The predicted variable for boy's friend-related stress was impulsive-control. The predicted variables for boy's school-related stress, teacher-related stress and surroundings-related stress were impulsive-control and behavioral-control. (4) Among three dimensions of self-regulation for boy,

the effective variables were impulsive-control and behavioral-control. And among six dimensions of stress were surroundings-related stress, school-related stress and friend-related stress.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child's self-regulation and stress

주제어(Key Words): 자아통제(self-regulation), 스트레스(stres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아동기는 가정이나 이웃, 또래에 한정되었던 생활 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며, 규율적인 생활의 요구와 다양한 사회적 적응,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의 압력 등으로 사회·정서적 어려움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더구나 현대의 급속한 사회변화는 아동에게 기대와 요구가 많아져 아동들은 미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여러 방면에서 고도의 성취를 해야 하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lkind, 1984).

스트레스는 자극이나 긴장 등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불안, 혼란 등을 느끼며 심리적, 신체적 평형이 깨어지는 상태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다. 유아기부터 아동들은 적응과 성취를 요구하는 일상적 상황에 접하게 됨으로써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흔히 경험하는 긴장 혹은 사소한 문제거리이지만, 개인의 적응과 행동문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고(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실제의 연구에서도 문제 행동의 많은 부분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hrenwend, Dohrenwend, Dodson, & Shrout, 1984). 그러나 비슷한 환경의 유사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여러 개인 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체계의 상호과정에서 유발되므로(Lemper & Clark-Lempers, 1990),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양은 다르게 된다. 그리하여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중재하리라는 개인적, 상황적 변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Compas, 1987).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연구된 개인적인 요인은 통제소재,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심희옥, 1998)과 부모나 또래, 교사로부터의 정서적이며, 심리적인 지지와 사회적지지, 사회적 기술 등(한미현, 유안진, 1995;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이다. 이 연구들은 생활사건 자체가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스트레스를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의 규명은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적응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아통제능력은 아동의 지각, 주의, 기억과정 등 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며, 성공적인 학습과 사회화를 예전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기(안미경, 1996) 때문에 학동기 아동에게는 중요한 능력이다. 이 능력은 주의집중, 감정통제, 대인관계, 학습동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자아통제능력은 계속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내적 정서, 생리 반응에 대한 주의력과 행동반응(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압하는 행동능력(Derryberry & Rothbart, 1988), 주의집중, 사건에 대한 대처, 상황적 요구에 대한 조절(Eisenberg & Fabes, 1992)을 포함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상황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 긴장, 불안 혼란 등에서 야기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아통제능력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아통제능력이 아동의 스트레스 변화에 있어서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즉 자아통제능력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나(Rothbart, 1989; Eisenberg, Fabes, Murphy, Maszk, Smith, & Karvon, 1995), 대인간의 현상이며,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되므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아통제능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Flavell, 1979). 따라서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밝혀지면 자아통제능력발달에 의한 스트레스 교정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tkinson의 연구(1977)와 Kendall과 Wilcox의 연구(1979)는 남아보다 여아의 자아통제능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수연(1985)도 욕구충족 지연행동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지연행동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이인숙(1997)은 자기감정관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음을 발견했으나, 권명순의 연구(1999)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력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덜 산만함을 보였으며(Eisenberg et al, 1993), 남아가 더 충동적임을 보여주는 연구(Rubin & Fisher, 1983), 남아가 여아보다 더 차분하지 않으며, 쉽게 주의산만해짐을 보여주는 연구(Miller, Palkes, Stewart, 1973)가 있다. 반면 남아와 여아간에 자아통제능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연구(Schwarz, Schrager & Lyons, 1983)도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 사건을 더 심각하게 지각한다는 연구(Elder & Caspi, 1988; Yamamoto, 1986), 남아는 자신감(Dunn, 1985), 여아는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연구(정원주, 윤종희, 1997)가 있으며, Rutter(1986)는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남녀아동의 취약 부분이 다름을 제시하였다. 한미현(1996)도 남아는 주변환경영역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여아는 친구영역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아동의 자아통제와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녀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셋째, 남·녀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통제능력의 상대적 설명력을 어떠한가?

넷째, 남·녀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군과 스트레스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해 많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아통제능력의 개념, 그리고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간의 관계에 한정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자아통제능력의 개념

자아통제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관리, 통제하는 기술이며(이순규, 1994),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opp, 1982). 또한 주의집중이나 정서적 작성, 신경 생리학적인 조절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 대처반응, 상황에 따른 조절, 감정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 전략 등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Eisenberg & Fabes, 1992). 직접적인 외부의 억제 없이 개인이 전에 했던 행동을 줄이거나 새로운 행동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도 나타나는 기술로 통제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이다(이순규, 1994).

자아통제능력에서 외부자극에 대한 내적 정서나 생리적 반응을 중시하는 입장(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에서는 충동성 조절을 부교감 신경의 활동으로 보고 유전적인 생물학적 영향력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되는 능력으로 보는 입장(Kopp, 1985)에서는 자아통제를 타인이나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부모의 양육행동 (Kochanska, Murray, Jacques, Koeing, & Vandegeest, 1996), 또래관계,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 자아에 대한 개념, 아동의 인지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Flavell, 1979). 인지발달 입장에서는 자아통제능력을 내성이나 의식, 초인지 등의 책략을 사용하는 능력,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을 인식하는 능력 (Wertsch, 1985), 사려적 사고나 정신활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Stark, Brookman & Frazier, 1990)으로 보고 있고, 행동주의입장에서는 행동의 내외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자신의 행동을 유지, 지시, 규제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김양현, 1987).

따라서 자아통제능력이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인지나 사고를 사용하여 행동을 계획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며, 부적절한 행동은 억제하거나 유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발달영역과 마찬가지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입장이 적합하다(Lerner, 1986)고 보아진다. 그리고 자아통제능력은 충동통제, 인지적 통제, 행동적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Kendall, Wilcox, 1979). 충동통제능력은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며, 인지적 통제능력은 문제해결을 잘하고 계획 및 종합, 평가하는 능력이다. 행동적 능력이란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 금지된 행동이나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다(안미경, 1996).

개인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특성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통제능력은 연령과 더불어 적절한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아동 중기까지 서서히 발달되며, 청년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Mischel, Shoda & Peake, 1988). 특히 학동기 아동의 자아통제능력은 성공적인 학습과 성공적인 사회화를 예전

해주는 능력으로 평가된다(안미경, 1996). 자아통제 능력의 부족은 과잉행동, 반항행동, 적대감정, 공격 행동, 주의집중결여, 대인관계갈등 같은 증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Rose, 1991).

그럼에도 이제까지 자아통제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임상장면에서 공격아동, 산만아동, 학업성취가 낮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아통제능력개발 훈련방법 효과에 치중해 있으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아동의 어느 발달영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

아동의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하지만, 아동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Medeiro, Babara, Welch, 1983)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아동기에 이르러 아동의 생활환경은 가정에서 학교로 확대되며,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성장의 압력과 사회적 적응의 요구를 받게 된다. 현대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아동에게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어, 아동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연구들은 아동도 성인 못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Compas & Wagner, 1991; Larson & Asmussen, 1991) 보여주었고,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과 신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현, 1996).

스트레스는 내적 또는 외적 요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여 적절하게 요구에 반응할 수 없을 때 경험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이 때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적응하지만,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오래 지속되면 개인의 안녕이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활사건의 주요한 변화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다(김정희, 1991), 단순히 생활사건만으로 스트레스

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스트레스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스트레스에 있어 개인적, 상황적 변수들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대처자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변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 요인이 복잡하고, 요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측정 방법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이나 기술, 자기존중감, 내외통제력 같은 개인적 측면(Compas, 1987) 외에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통제신념 및 자아존중감은 자아통제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Kaslow, Rehm, Pollach & Siegel, 1988), 통제신념과 자아존중감도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owenstein, 1983). 내외통제소재가 스트레스와 심리적, 신체적 질병간의 관계에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Kobasa, Maddi & Kahn, 1982),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사회적 적응도 낮게 나타났다(Lowenstein, 1983). 또한 아동의 내적 통제력은 자아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Ferrer & Krants, 1987), 내적 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능력도 높게 나타났다(정현희, 최경순, 1997). 물건을 받지 못하는 좌절상황이나 친구와의 갈등상황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높은 통제감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스트레스대처능력과 관련이 있었다(Caussay & Dubow, 1992). 자아통제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거나(Rose, 1991), 공격적인 반응을 보여 또래들에게 인기가 낮았다(Stocker & Dunn, 1990).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에서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성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들을 보면 남아와 여아의 전반적인 자아통제능력에 성차가 나타나며(Atkinson, 1977; Eisenberg et al., 1993;

Kendall & Wilcox, 1979), 자아통제능력의 구성요소인 만족지연, 주의집중, 충동억제, 감정조절에서도 성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욕구충족 지연행동을 보였고(이수연, 1985), 자기감정관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이인숙, 1997),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력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덜 산만함을 보였다(Eisenberg et al., 1993).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남녀아동의 취약 부분이 다름이 제시되고 있으며(Rutter, 1986), 한미현(1996)은 남아는 주변환경영역에서 여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여아는 친구영역에서 남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음을 발견했다. 또한 여아는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연구(정원주, 윤종희, 1997)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를 보는데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소재 10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표집에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도록 부산 시내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진구, 사상구의 5 지역에서 초등학교 2개교씩 유의표집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구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는 214명으로 56.32%, 여아는 166명으로 43.68%였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4.74%, 둘째가 41.58%였다.

부모에 대해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36세-40세가 30.26%, 41세-45세가 51.32%로 다수가 36세-45세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64.74%이며, 41-45세가 20.26%였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49.21%), 대졸(27.63%)의 순이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56.84%), 대졸(38.16%)로 부모의 교육정도는 다수가 고졸 이상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23.42%), 사무직(21.32%), 기능직(20.53%), 전

문·관리적(12.89%)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서는 전일제 취업이 50.00%, 시간제가 39.5%였다. 그리고 핵가족이 대다수(87.89%)였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자아통제능력 검사

아동의 자아통제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Kendall과 Wilcox(1979)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통제력 검사(SCRS: Self-Control Rating Scale)를 수정 보완한 이순규(1994)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특징은 충동, 인지, 행동을 개념화 시킨 점이다. 자아통제를 할 수 있는 아동이란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며, 인지면에서는 문제해결을 잘하고, 계획 및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지닌 아동이다. 그리고 행동면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며,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아동이다. 선행연구는 총점으로 자아통제능력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이론적 구성이 충동통제, 인지통제, 행동통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요인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충동통제의 Cronbach $\alpha=.82$, 인지통제의 Cronbach $\alpha=.79$, 행동통제의 Cronbach $\alpha=.84$ 이었다.

2) 아동의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포괄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구의 스트레스 측정도구(Felner & Felner, 1985 : Dohrenwend & Shrout, 1985)와 국내의 척도(류수영, 1993 ; 윤혜영, 1993)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명의 아동을 개별 면접을 통해 스트레스 문항을 구성한 후 문항 양호도, 요인분석, 기준관련 타당도, 신뢰도를 거쳐 구성된 한미현(1996)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스트레스, 가정환경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

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스트레스는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행동, 또는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부담감이 포함된다. 가정환경스트레스는 가정의 경제상태나 가정분위기, 가족원간의 관계 등의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는 불만이나 심리적인 고통 등이 포함되어 있고, 친구스트레스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친구들과의 불만족스런 관계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반응이 포함된다.

학교스트레스는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 수행 및 성취와 관련해서 아동들이 경험하게 되는 긴장이나 초조감, 걱정, 심리적 부담과, 학교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아동이 느끼는 불만, 짜증 등이 포함된다. 교사스트레스는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며, 주변환경스트레스는 학교나 집 주위의 소음이나 청결문제, 놀이공간, 교통문제 등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불쾌감, 짜증, 불만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1점에서 '많이 받는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00년 11월 첫주부터 11월 세째주 사이에 실시하였다.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할 때 자연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개입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Manova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자아통제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중다회귀분석,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아동의 자

아동제능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성별에 따라 아동의 자아통제와 스트레스지각은 차이가 있는가?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지각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통제 3하위변인 모두에서 여아의 자아통제가 남아의 자아통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통제에서 여아가(M=3.64) 남아(M=3.39)보다, 인지통제에서 여아(M=3.63)가 남아(M=3.27)보다, 행동통제에서도 여아(M=3.67)가 남아(M=3.35)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통제력을 보여 주었다. 이는 남아와 여아는 자아통제능력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성별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고, 순수한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통제처리는 남녀 각각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아동의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제 분석

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 하위 변인 중에서 부모관련스트레스와 친구관련스트레스에서만 남·녀 아동 간에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부모관련스트레스에서 남아(M=2.55)는 여아(M=2.23)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련스트레스에서는 남아(M=1.76)에 비해 여아(M=1.92)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스트레스에서는 남·녀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자아통제와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 지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상관을 보면 하위변인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충동통제와 친구스트레스($r=-.26$, $P<.05$), 충동통제와 학교스트레스($r=-.22$, $P<.05$), 충동통제와 교사스트레스($r=-.23$, $P<.05$), 충동통제와 주변환경스트레스($r=-.20$, $P<.05$) 간에 유의한 부적 상

<표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통제와 스트레스 차이

변 인	남아		여아		Error MS (error df)	Type I SS	F	
	M	S.D	M	S.D				
자아통제	충동	3.39	1.07	3.64	.95	16.70(378)	114.11	3.42*
	인지	3.27	.98	3.63	.96	15.31(378)	208.29	6.80**
	행동	3.35	.99	3.67	.83	29.72(378)	388.55	6.54**
스트레스 지각	부모	2.55	.85	2.23	.78	10.86(378)	58.51	2.77*
	가정환경	1.79	.75	1.74	.91	10.79(378)	2.28	.11
	친구	1.76	.75	1.92	.88	10.57(378)	54.30	2.57*
	학교	2.53	1.04	2.55	1.03	9.67(378)	23.13	1.20
	교사	1.87	.87	1.92	.90	7.11(378)	12.30	.87
	주변환경	1.89	1.19	1.79	1.03	5.02(378)	12.50	1.25

* $p < .05$, ** $p < .01$

〈표 2〉 자아통제와 스트레스의 상관

		스트레스					
		부 모	가정환경	친 구	학 교	교 사	주변환경
자아 통제	충동	-.05 (.07)	-.05 (.04)	-.26*(-.19)	-.22*(-.12)	-.23*(.01)	-.20*(-.10)
	인지	-.04(-.01)	-.10(-.02)	-.05 (-.11)	-.04 (-.03)	-.19 (-.05)	-.06 (-.12)
	행동	-.12(.05)	.16(-.01)	-.10 (-.15)	-.20*(-.05)	-.21*(-.04)	-.23*(-.07)

* p< .05. () 여아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통제력이 높을수록 친구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통제는 학교스트레스($r=-.20$, $P<.05$), 교사스트레스($r=-.21$, $P<.05$), 주변환경스트레스($r=-.23$,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즉 행동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는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통제능력의 설명력

아동의 자아통제능력이 아동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아통제 변인은 친구스트레스에서 충동통제가 6%, 학교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에서 충동통제와 행동통제가 각각 8%, 5%, 12%의 설명력을 보였다. 인지통제는 스트

〈표 3〉 아동의 자아통제와 스트레스와의 중다회귀분석

	변 인	남아			여아	
		회귀계수	R ²	F	회귀계수	F
부모 스트레스	충동	-.05			.13	
	인지	-.04			-.14	
	행동	.04			.07	
가정환경 스트레스	충동	.01			.11	
	인지	-.09			-.07	
	행동	-.02			-.01	
친구 스트레스	충동	-.20*			-.11	
	인지	.05			.07	
	행동	-.03			.09	
학교 스트레스	충동	-.13*			-.08	
	인지	.09			.03	
	행동	-.12*			.05	
교사 스트레스	충동	-.14*			.05	
	인지	-.03			-.03	
	행동	-.10*			-.05	
주변환경 스트레스	충동	-.21*			-.02	
	인지	-.04			-.10	
	행동	-.23*			.08	

* p< .05

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통제가 부모스트레스, 가정환경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아에게는 자아통제가 스트레스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자아통제는 남아의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나, 여아에게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변인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군과 스트레스군의 관계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나타났고,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서 남아와 여아 간의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준분석에서 남아와 여아를 분리하여 보고자 한다.

〈표 4〉와 같이 남아의 자아통제군과 아동의 스트레스군간에는 제1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wilk' $\lambda = .92$, $p < .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제1정준함수에 대해서 정준상관관계의 정준변형계수와 정준부하량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의 자아통제군에서 행동통제, 충동통제의 정준변형계수가 높았고, 스트레스군에서는 가장 높은 변수로 주변환경스트레스이고, 다음은 학교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순으로 높은 변수였다. 즉 충동통제와 행동통제가 높은 남아들은 주변환경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가 낮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정준부하량에 의하면 자아통제군에서는 행동통제

〈표 5〉 남아의 자아통제군과 스트레스군의 정준변형계수 및 정준부하량

		정준변형계수	정준부하량
자아통제군	충동	.77	.61
	인지	-.38	.02
	행동	.86	.65
스트레스군	부모	.15	.03
	가정환경	.20	.01
	친구	-.39	-.46
	학교	-.51	-.50
	교사	-.36	-.30
	주변환경	-.78	-.58

및 충동통제. 그리고 스트레스군에서는 주변환경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의 정준함수에 대한 공헌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정준변형계수과 정준부하량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자아통제군과 스트레스군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정준교차부하량을 구하였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자아통제군의 행동통제와 충동통제가 스트레스군의 주변환경스트레스 및 학교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를 예측해 줄 수 있는 변

〈표 6〉 제1정준함수와 각 변인간의 교차부하량

	w1		v1
자아통제		스트레스	
충동	.15	부모	.02
인지	.01	가정환경	.01
행동	.16	친구	-.11
		학교	-.13
		교사	-.07
		주변환경	-.14

〈표 4〉 자아통제군과 스트레스군과의 정준상관분석(남아)

정준함수	Canonical R	Canonical R ²	Eigen value	Likelihood Ratio	df
제1정준함수	.24	.06	.06	.92*	18
제2정준함수	.17	.03	.03	.97	10
제3정준함수	.11	.01	.01	.98	4

* $p < .05$

<표 7> 자아통제군과 스트레스군의 설명력

변인	정준중복지수	변인	정준중복지수
자아통제군	.06	스트레스군	.03

인으로 나타났다. 정준변형계수, 정준부하량, 교차부하량을 종합해 볼 때 자아통제군에서의 행동통제 및 충동통제와 스트레스군에서의 주변환경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및 친구스트레스가 서로 관계가 큼을 알 수 있다.

자아통제군이 스트레스군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정준중복지수를 구한 결과(표 7 참조), 자아통제군의 정준함수는 스트레스군을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아의 자아통제군과 스트레스군과의 정준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아의 정준상관함수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률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아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 간에 유의성이 없는 사실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통제능력 및 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아통제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통제능력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통제력이 높다는

연구(Atkinson, 1977 ; Kendall & Wilcox, 1979)와 일치된 결과이다. 실제로 남아는 여아보다 더 충동적이며, 주의집중 결함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Zuckerman, 1994). 인지면에 있어서도 여아의 성숙이 더 빠르며, 행동면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공격적인 성향, 더 과활동성과 과잉행동을 보인다 (Rubin, Fisher, 1983). 이러한 행동들이 남아의 통제력이 영아의 통제력보다 낮음을 설명하는 이유의 한 측면이 된다고 사료된다.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부모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에서만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스트레스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고, 친구스트레스에서는 여아의 스트레스가 남아의 스트레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를 더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부모가 남아에 대해 더 명령적 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현희, 최경순, 1997). 이러한 양육행동의 차이에서 남아가 더 높은 부모 스트레스를 지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친구스트레스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는 대인관계에 보다 민감하고, 대인간의 친밀과 정서적인 면을 중시한다 (Perry & Bussy, 1984). 따라서 여아는 남아보다 친구관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되며, 결국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한미현 (199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둘째,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아의 경우 충동통제와 친구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 행동통제와 학교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산만하며,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대인간 문제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적,

<표 8> 자아통제군과 스트레스군과의 정준상관(여아)

정준함수	Canonical R	Canonical R ²	Eigen value	Likelihood Ratio	df
제1정준함수	.27	.07	.08	.88	18
제2정준함수	.21	.05	.05	.94	10
제3정준함수	.10	.01	.01	.99	4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Rose, 1991). 때문에 자아통제능력은 학교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적인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며(Dodge, 1985),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Kazdin, 1987). 그리고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은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거나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며, 이는 교사나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등의 대인간 부적응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Asarnow & Callan, 1985). 따라서 이는 교사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여아의 경우에는 자아통제와 스트레스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 공격 등의 행동문제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고(정현희, 오미경, 2000), 본 연구에서는 남아가 충동통제능력과 행동통제능력에서 여아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아의 충동통제 및 행동통제와 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이 나타난 반면 여아에게는 산만과 공격행동이 남아보다 적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남아보다 적기 때문에 여아의 자아통제와 스트레스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자아통제가 낮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어 그 결과가 비교될 때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아통제능력은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활동의 강도나 빈도, 지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Kopp, 1982), 주변상황에 대해 잘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변인이다. 남아들의 경우 여아들에 비해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으므로 놀이, 운동공간, 주위환경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많다(한미현, 1996). 이런 면에서 충동통제, 행동통제와 주변환경스트레스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셋째,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통제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충동통제와 행동통제가 남아의 친구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통제와 행동통제가 스트레스를 설명하

는 유의한 변인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충동통제, 행동통제는 부정적 정서성, 공격적 반응 등을 나타내며, 이는 또래에게 인기를 얻지 못한다거나(Stocker & Dunn, 1990), 산만, 주의집중의 결함을 나타내어, 학업성취가 낮다는 연구(Rose, 1991)에서 친구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문제 1과 문제 2의 설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자아통제의 행동통제와 충동통제는 스트레스의 주변환경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는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며, 스트레스는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신체적 불균형으로 두 변인은 예상했던 바대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지통제는 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자아통제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는 충동통제, 행동통제는 유아기에 뚜렷이 나타나며, 아동 중기까지 계속 발달하는데 비해(Messer, 1976), 문제해결 책임생성과 의식적 통찰 능력을 포함한 인지통제는 아동 중기까지 서서히 발달되며, 청년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됨을 보여준다. 즉 인지통제는 인과적 사고능력, 규칙에 대한 개념화와 다른 상황에의 적용 등의 인지적 요인도 포함하고 있고(Ward, 1973), 사려성의 영향도 받으며, 아동 중기까지 연령과 더불어 계속 증가된다(Maccoby, 1980). 본 연구 대상의 아동 연령에서는 인지영역이 아직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지통제와 스트레스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이의 검증의 위해서는 연령변화에 따른 연구가 요청된다.

자아통제가 부모스트레스, 가정환경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동의 억제, 행동의 통제가 가정 내보다 가정 밖에서 더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가정 밖의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있으나, 가정 내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정이 정서적 안정의 기능을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의 기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있어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은 자아통제능력의 영향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아통제능력의 증진이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런 측면에서의 연구도 앞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명순(1999). 유아의 감성지능과 또래간 인기도와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현(1987). 자기통제법과 외적 통제법이 학업성적의 향상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 대광문화사.
- 류수영(1993).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38.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규(1994). 자기조절 학습훈련이 아동의 자주적 학습태도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주, 윤종희(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87-100.
- 정현희, 오미경(2000).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6), 171-183.
- 정현희, 최경순(199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63-175.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Asarnow, J. R. & Callan, J. W. (1985). Boys with peer adjustment problem : Social cognitive proces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1, 80-87.
- Atkinson, M. B. (1977). Th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distractions self imposed delay of gratific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 4998-B.
- Causey, D. L.,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strategies :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mpas, B. E. & Wagner, B. M. (1991).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support with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204-221.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58-966.
- Dohrenwend, B. S., Dohrenwend, B. P., Dodson, M., & Shrout, P. E. (1984). Symptoms, hassles, social supports, and life events : Problems of confounded meas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22-230.

- Dohrenwend, B. P. & Shrout, P. E. (1985). "Hassle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variables. *American Psychologist*, 40, 780-785.
- Dodge, K. A. (1985). Attributional bias in aggressive children, *Advances in cognitive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4, 73-110. Academic Press.
- DuBois,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Dunn, J. A. (1985). St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test anxiety scale for children across age and sex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87-200.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150. Newbury Park, CA : Sage.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Smith, M., & Karbon, M.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 Elde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25-45.
- Elkind, D. (1984).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Ferrer, M., Krantz, M. (1987). Self-contro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tatus in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Vol 60-2, 355-358.
- Felner, R. D. & Felner, T. Y. (1989). Primary prevention program in the educational context: A transactional-ecological framework and analysis. In L. A. Bond & promotion in the schools. Newbury Park, CA : Sage, 13-49.
-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776-783.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 Daily hassles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anfer, F. H., Karoly, P. (1972). Self-control : A Behavioristic excursion into the lion's den. *Behavior Therapy*, 3, 398-416.
- Kaslow, N. J., Rehm, L. P., Pollack, S. L., Siegel, A. W. et al. (1988). Attributional style and self-control behavior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2), 163-175.
- Kazdin, A. E. (1987).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2, 187-203.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7(6), 1020-1029.
- Kendall, P. C., Zupan, B. A., & Braswell, L. (1981). Self-control in children : Further analysis of the self-control rating scale. *Behavior Therapy*, 12, 667-681.
- Kobasa, S. C., Maddi, S. R., & Kah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7.
- Kochanska, G., Murry, K., Jacques, T. Y., Koeing, A. L., & Vandegeest, K. A. (1996). Inhibitory

- control in young children and its role in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7, 490-507.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arson, R. & Asmussen, L. (1991). Anger, worry, and hurt in early adolescent : An enlarging world of negative emotion. In M. E. Colten & Gore(Eds.). *Adolescent Stress*, 21-42, N. Y. : Alden.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 Pringer Pub.
- Lempers, J. D. & Clark-Lempers, D. (1990). Family economic stress, maternal and paternal support and adolescent distress. *Journal of Adolescence*, 13, 217- 229.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nd ed.). New York : Random House.
- Lowerstein, L. F. (1983). Developing self-control and self-esteem in disturb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4, 229-236.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N. Y.: harcourt Brace Jovanovice.
- Medeiro, D. C., Babara, J. P.,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Messer, S. B. (1976). Reflection-impulsivit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3, 1026-1052.
- Miller, R. G. Palkes, H. S., & Stewart, M. A. (1973). Hyperactive children: suburban elementary school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2, 121-127.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Perry, D. G. & Buss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 Prentical Hall.
- Prior, M. (1992). Childhood tempera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249-279.
- Rose, A. (1991).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ling skills to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
- Rothbart, M. K. (1989). Behavioral approach and inhibition. In J. S. Reznick(Ed.), *Perspectives on behavioral inhibition*(139-157). Chicago : Uni. of Chicago press.
- Rubin, R. R. & Fisher, J. J. (1983). *Your Toddler*. New York: MacMillan.
- Rutter, M. (1986). Maternal deprivation.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Schwarz, J. C., Schrager, J. B., & Lyons, A. E. (1983). Delay of gratification by preschools :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choice paradigm. *Child Development*, 54, 620-625.
- Stark, K. P. Brookmen, C. S., & Frazier, R. (1990). A comprehensive school-based treatment program for depress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5, 111-140.
- Stocker, C. & Dunn, J.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Ward, W. (1973). *Disadvantaged children and their first school experience*. Princeton, NJ : ETS.
- Wertsch, J. V. (1985). *Adult-child interaction as a source of self regulation in children*. In the growth of reflection in children. London : Academic Press.
- Yamamoto, K. (1979). Children's rating of the stressfulness of experi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81-582.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Y : Cambridge Uni. Press.